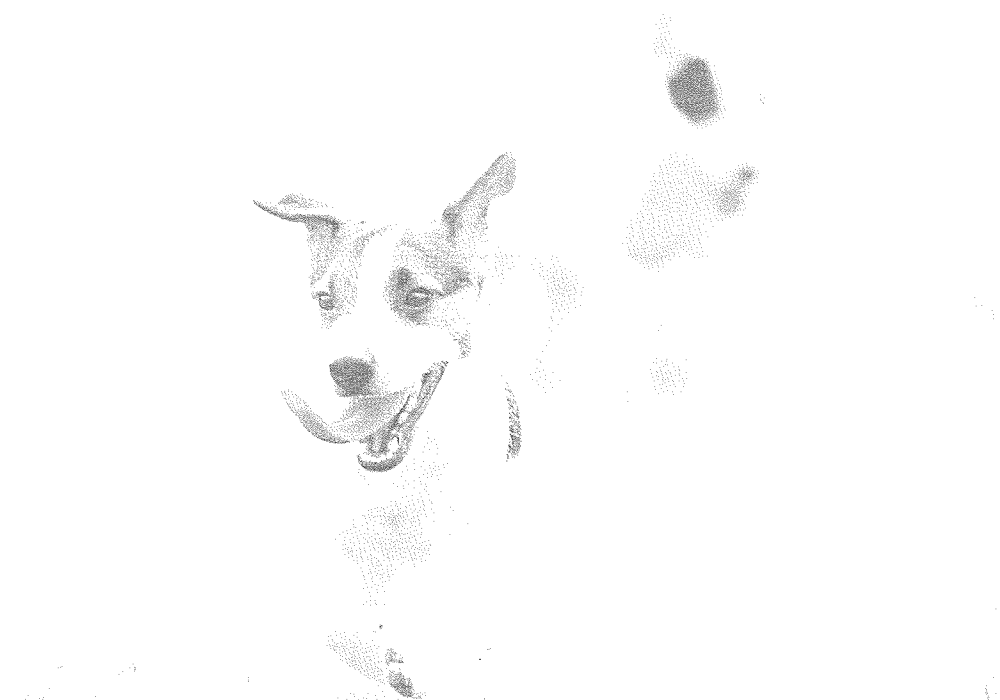




[INTERVIEW]

애견시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사)한국애견협회 윤일섭 이사





공원에 애견출입을 허(許)하라


(사)한국애견협회는 병술년을 맞는 마음이 남다르다. 올해는 그간 주춤했던 애견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쪽으론 아직 애견을 위한 제반 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피드저널이 우리나라 애견인의 공동체인 (사)한국애견협회 윤일섭 이사를 만나 병술년을 맞는 애견인들의 소원과 기대를 들어보았다.


Planning special [3] 기획특집

>>인터뷰 : 이미지 기자<<

 개띠 해를 맞아 애견시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역시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전종 애견단체입니다. 농림부에서 공인된 총 회원 30만명, 전국지회 80곳, 견종클럽 255곳, 지정훈련소 70곳, 지정 미용학원 50곳, 지정색인기 지소 80곳, 해외지회 3곳의 국내 최고, 최대의 애견 단체입니다. 또한 세계인명구조연맹 IRO 회원국, 세계세퍼드견연맹 WUSV 회원국으로 활발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1,000만 애견인을 대표하는 협회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 애견시장(애견인 수 및 애견 수, 경제적 가치)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애견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집계하고 있습니까?

 우리협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애견시장의 규모를 약 1조8,76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견사료의 비중은 약 35% 정도일 것으로 집계되는데 액수로 환원하면 약 6,56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애견인수는 약 1천만 명 정도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애견 수는 약 350만 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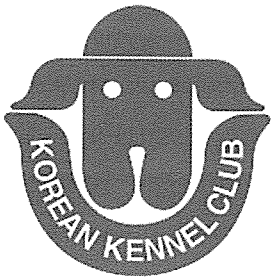


▲ 오른쪽 끝이 윤일섭 이사

의 기대심리에 기반한다면, 올해 애견시장은 약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올해는 특별히 개띠 해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애견사업을 비롯한 애완동물 시장의 성장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님께서도 올해 올해의 애견시장 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요?

② 우리나라에서는 개띠해가 될 때마다 애견시장이 성장해왔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올해 병술년에도 애견시장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의 애견시장이 최저점을 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회복 전망 등



③ 그렇다면, (사)한국애견협회에서도 애견시장의 부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④ 네. 있습니다. 우선 각종 매스컴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애견 이벤트 및 도그 쇼(dog show)를 보다 자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올해 약 60회 이상의 이벤트와 도그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스컴으로 인한 애견시장의 거품형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둘 예정입니다.

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만큼 우리나라의 애견문화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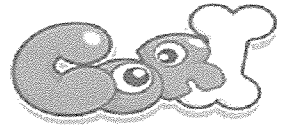
⑥ 우리나라 애견문화는 몇몇 애견인들이 행하는 에티켓 면에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신당 문화로 인한 개의 사육방법이나 애견학대를 논의로 한다면, 순수 애견인의 애견문화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애견복지 정책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사안은 해외토픽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⑦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요?

예를 들면, “모든 애견이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라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로 웃지 못 할 발상입니다. 개에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 에티켓 교육이 필수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애견 외출 시 마스크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중이라니 정말 해외토픽감이죠. 말티즈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시츄 외출 시 마스크 필수...(^). 그리고 공원, 산책길, 심지어 한강 둔치 시민공원에도 애견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답답합니다. 사람처럼, 애견도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당한 운동이 불가능하면, 애견은 스트레스를 받아 쓸데없이 짖는 등, 난폭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웃과 분쟁도 일어나게 되지요.

애견인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애견문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는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속칭 ‘개똥녀’ 사건 등 일부 애견인들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애견인들이 소소한 일탈로 모든 애견인들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견인들은 애견문화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겠습니다. 외출 시 반드시 애견에게 목줄을 착용하게 하고, 애견들의 배변을 위해, 봉투를 지참하는 것은 물론, 배변 시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우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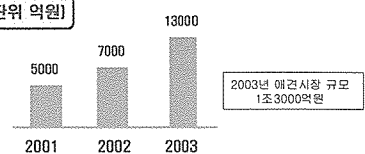
애견 시장 현황

그리고 유기견 문제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단 애견이 유기되면 각종질병에 노출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복지가



시장규모(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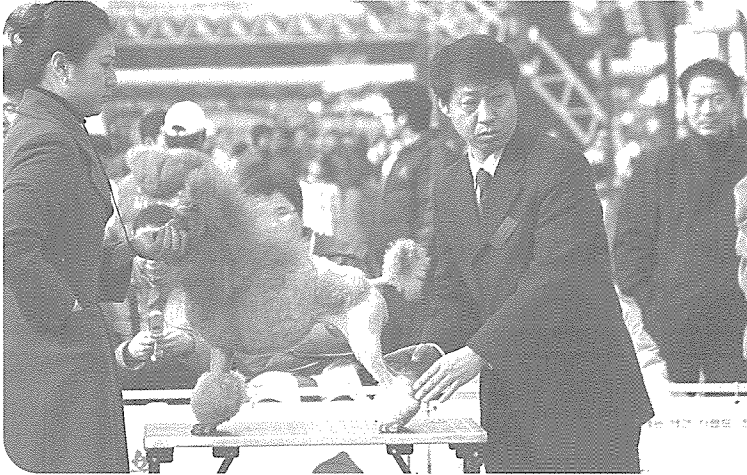


매년 20~30% 성장

국내 애견업은 도입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진입한 상태

애견 관련업체 (사료, 용품, 의류, 교육, 번식, 의료, 샵, 약품 등) : 약 5,000개 업체

국내 전체 인구대비 애완동물 보유인구 : (700만명, 300만 마리)



장 큰 대안이므로, 유기견문제와 동물복지 문제는 별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꼬리라고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유기견을 단지 '유기된 견'으로 생각하면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기가 되었는가를 알아보아야 하지요. 애견을 유기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기불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견을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애견을 유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요. 우선 공원, 산책로 등에 애견의 출입을 허용하기만 해도 유기견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처럼 에니멀 파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공원과 산책로에 애견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애견은 사람과의 사회성이 좋아지고, 애견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물론, 분쟁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 그렇게 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일부 애견인들의 성숙하지 못한 뒤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그것은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만약, 어떤 애견인이 애견을 산책 시키다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등 애견인으로서 에티켓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에 합당한 과태료를 물리면 되는 것이지요.

☎ 이제 사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견인들에게 사료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입니다. 애견에 있어서 사료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食)에 해당하고, 애견에게는 물론, 애견인들의 관심도 큰 부분입니다.

☎ 현재 애견인들이 사료를 구매하는 가장 큰 통로는 어디이며, 국산 애견사료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 대형 할인마트, 병원, 대리점 등에서 구입하고 있고, 국산 이용률은 약 3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 평소 애견사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애견사료에 대해 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가격입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질 좋은 사료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애견인들의 바람이죠. 그리고 또 시급히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수입사료의 질 문제입니다. 특히 벌크로 수입되는 애견 사료가 문제인데, 일부 수입업자들은 벌크 수입 사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재포장하는 과정 중에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또 유통기한이 지는 사료를 다시 뜯어 유통기한만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이런 사료가 많이 개발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인간의 곁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인 만큼 밀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애견입니다. 그러니 변 냄새를 저감하는 사료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료는 건강한 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변으로 확인하여 그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출시되길 바랍니다. 그 외 좀더 기호성이 좋은 사료, 그리고 애견의 크기나 품종에 적합한 다양한 알갱이 사이즈가 있는 사료 등이 개발되어 나왔으면 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㉔